독자사랑 한결같은 책문화의 정수들

《난장이…》 100쇄 기록 등…20년 이상 팔리는 스테디셀러도

60년대에서 80년대 초반까지 나온 국내 저자의 책 가운데 50쇄 이상, 수십만부의 발행부수를 기록하는 '스테디셀러'는 우리의 문화적 역량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최인훈·조세희·이청준 등 굵직한 작가에서부터 세대를 초월하는 흡인력을 지닌 저자들의 스테디셀러는 출판문화의 밑반찬이자 보약이기도 하다.

책의 수명이 갈수록 짧아지는 요즘이다. 짧게는 석달 길게 잡아도 육개월 안에 소위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지 못하면 책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하기야 간행한 책 가운데 70%가 독자의 손에 한번 들려보기도 전에 폐지 처리되는 상황이고 보면, 서점의 한켠에서 몇달 동안만도 '간택'을 바랐던 책들은 그나마 운이 좋은 편이랄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십여년 넘게 독자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책이 없지 않다. 우리가 흔히 스테디셀러 (steady seller)라고 부르는 책은 시류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꾸준하게 독자를 흡인하고 있다. 우리 시대의 스테디셀러는 1960년대에서 80년대 초반 사이에 나온 국내 저자의 책 가운데 50쇄 이상 찍고, 수십만부의 발행부수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살아있는' 책들이다. 최근 문학과지성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100쇄를 기록했다는 소식은 살아있는 스테디셀러의 대표적인 예다.

스테디셀러와 출판사의 함수관계

독자 일반의 인식에서 의외다 싶은 스테디셀러 출판사가 바로 '샘터사'이다. '유아교육신서'의 1·2·3번인 《머리를 써서 살아라》, 《아이는 이렇게 키워라》, 《젊은 엄마를 위하여》 가 나란히 50쇄 이상을 기록중이다. 특히 정원식의 《머리를 써서 살아라》는 70년대 초반의 쇄까지 포함하면 100쇄를 헤아린다. 법정의 에세이 역시 《샘터사》의 빼놓을 수 없는 스테디셀러이며, 국내 저작물이라는 기준에 미흡하기는 해도 오천석이 엮은 《노란 손수건》은 1972년 이후 올해까지 92쇄를 자랑한다.

'유아교육신서'는 전인미답의 분야를 선점한 것이 현재까지 추진력을 얻는 요인이고, 에세이와 훈훈한 미담 모음에 대한 호응은 월간 《샘터》가 보여주는 한결같음이 단행본에 재현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창작과비평사'는 장르별로 네권의 스테디셀러를 갖고 있는데 《농무》, 《객지》, 《전환시대의 논리》, 《몽실 언니》가 그것. 모두 새로운 시대 정서와 새로운 세계관을 예고하는 신호탄의 성격을 갖는다. 문학평론가 한만수는 신경림 시의 세대를 초월한 흡인력을 중간층 독자, 농민시, 감동 보온 장치로 파악한 바 있다. 그 표본인 《농무》가 본래 자비출판 시집인 사실은 아이러니이다. 이는 스테디셀러와 출판사의 함수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기도 하다.

'창작과비평사'의 스테디셀러는 정확한 쇄수와 발행부수를 모른다. 권력의 출판문화에 대한 광포한 탄압을 비껴가며 '치고 빠지는' 게릴라식으로 책을 찍어낸 까닭이다. 금서 지정, 판금에서 지형 압수에 이르기까지 책 자체에 대한 옥죔만도 일일이 거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몽실 언니》는 당시 소관부서의 우수 도서 추천을 받은 이듬해 금서로 지정되는 진기한 기록을 갖고 있다.

한편 상대적으로 탄압을 덜 받고, 꼼꼼하게 판쇄와 발행부수를 기록한 '문학과지성사'의 스테디셀러에는 《난장이가…작은 공》과 《광장/구운몽》이 있다. 돌풍 그자체였던 조세희의 첫 창작집은 1978년 6월부터 현재까지 3판 100쇄 40만8천3백부의 발행부수를 기록한다. 먹구름 속에서 잠시 보인 푸른하늘이었던 《광장》은 문학과지성사에서 다시 둥지를 틀고 20년간 99쇄 28만7백부가 나왔다.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고발소설인 작가의 의도가 우화 형식으로 인해 아름답게 읽히는 역설이 있지만 긴 숨을 가진 조세희의 작품과 아직 이를 문학사 저편으로 밀어낼 만한 분단소설이 없는 상태인 《광장》은 한국현대소설의 고전이다.

'한길사상신서'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한길사'는 신서 목록의 앞자리를 차지했던 《우상과 이성》, 《해방전후사의 인식》이 기세는 한풀 꺾였어도 스테디셀러로 남아 있다. 아무래도 한길사를 대표하는 스테디셀러는 함석헌의 《뜻으로 본 한국역사》이다. 1965년 '제일출판사'에서 처음 나온 뒤, 1983년 한길사로 옮겨 오늘에 이른다. 최근에는 전집을 추려 만든 선집중 한권으로 새 판을 선보였다.

한국을 대표하는 스테디셀러 작가들

이청준, 법정, 이해인, 황석영, 박경리, 이문열 등이 한국을 대표하는 스테디셀러 작가들이다. 앞의 세 저자는 스테디셀러 독자군을 설명해 주는 듯하다. 이들은 공교롭게도 각기 개신교, 천주교, 불교를 기반으로 삼고 있는데 종교는 변화에 무척 둔감하고 세대를 통한 신자의 확대 재생산이 특징이다. 이런 종교의 특질에 힘입은 것 말고도 이 세사람의 구도자(이청준 같은 소설가는 구도자로 볼 수 있다.)가 자신의 종교에 몰각하지 않고 보편적 진리를 추구한 것도 스테디셀러 작가가 되게 한 요인으로 보인다.

스테디셀러는 긴 수명을 갖는 까닭에 출판사를 옮겨다니며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박경리의 《김약국의 딸들》은 을유문화사(1962)에서 현암사(1965)를 거쳐 지식산업사에서 전집의 일부로 나오다가 나남으로 이적, '재생'했다. 아직도 쇄와 판을 구분못하는 출판사가 있는 형편에서 나남판 판권면의 〈영화 전태일〉의 엔딩 크래딧 같은 발행일 표시는 차라리 감동적이다.

《장길산》도 현암사에서 창작과비평사로 판권을 옮겼고, 역시 현암사에서 삼성출판사를 거쳐 문학사상사에 정착한 《흙 속에 저 바람 속에》는 최종 기착지에서만 39쇄가 나왔다. 어린이물의 스테디셀러 《먼나라 이웃나라》는 전면 개작이긴 하지만 70년대 중반 어문각에서 펴낸 다섯권짜리 만화 《시관이와 병호의 모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시대의 스테디셀러

제 목	지 은 이	펴 낸 곳	초간연도
김약국의 딸들	박 경 리	—	1962
흙 속에 저 바람속에	이 어 령	—	1964
뜻으로 본 한국역사	함 석 헌	—	1965
토지	박 경 리	—	1973
객지	황 석 영	창작과비평사	1974
전환시대의 논리	리 영 희	창작과비평사	1974
농무	신 경 림	창작과비평사	1975
광장·구운몽	최 인 훈	문학과지성사	1976
당신들의 천국	이 청 준	문학과지성사	1976
장길산	황 석 영	—	1976
머리를 써서 살아라	정 원 식	샘터사	1977
우상과 이성	리 영 희	한길사	1977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조 세 희	문학과지성사	1978
서있는 사람들	법 정	샘터사	1978
해방전후사의 인식 1	—	한길사	1979
낮은 데로 임하소서	이 청 준	홍성사	1981
젊은날의 초상	이 문 열	민음사	1981
오늘은 내가 반달로 떠도	이 해 인	분도출판사	1983
철학에세이	조 성 오	동녘	1983
노동의 새벽	박 노 해	풀빛	1984
몽실 언니	권 정 생	창작과비평사	1984
먼나라 이웃나라	이 원 복	고려원미디어	1987

'열정의 시대' 80년대에 널리 읽혔던 책들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사상의 은사' 리영희의《전환시대의 논리》와《우상과 이성》을 필두로 박노해의 시집《노동의 새벽》은 아직도 수요가 있다.《철학 에세이》는 이른바 의식화 교육의 입문서로 군림하다 이제는 수학 능력 시험과 논술을 대비한 부교재로 중고생에게 널리 읽히고 있다.

'밑반찬'이고 '보약'인 스테디셀러

위에 열거한 스테디셀러를 뜯어보면 몇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먼저 장정에서부터 드러나는 한결같음이다. 지형의 노후와 글자키우기로 책 크기가 바뀌기기는 해도 표지나 본문의 체재는 여일하다. 내용면에서는 시대를 예감하고 앞서가는 예언자적 지성과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끈질긴 보수주의가 공존한다. 또한 어떤 내용이든 세태에 영합함이 없는 자기세계의 추구가 도드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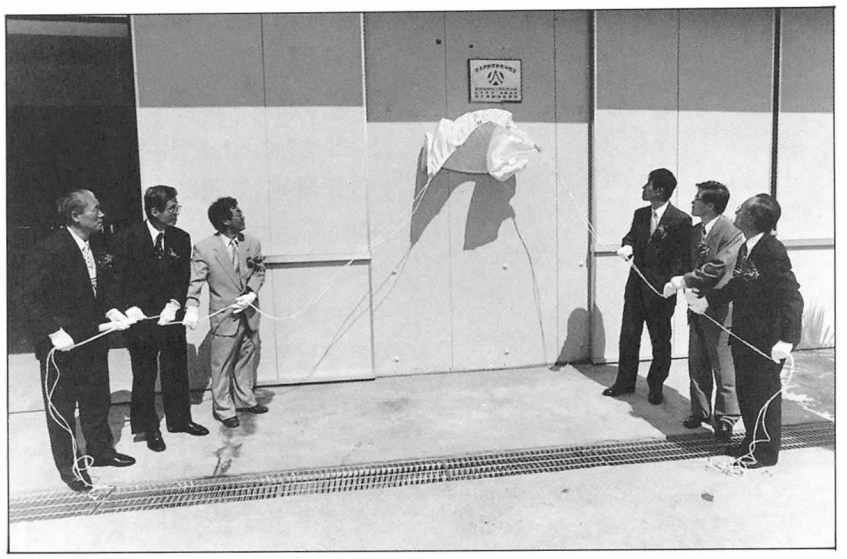
스테디셀러는 '밑반찬'이고 '보약'이다. 스테디셀러를 밑반찬에 비유한 창작과비평사의 한기호 영업이사는 스테디셀러가 많을수록 결과에 구애받지 않는 '무모한' 기획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학술 스테디셀러의 부재는 차치하고 후세에 전할 만한 각 학문분야의 입문서가 번변하지 못한 현실을 개탄했다.

"10, 20년간 독자의 사랑을 받는 스테디셀러는 책의 본질과 출판문화에도 부합하는 출판의 본령입니다. 책은 세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인간의 심성을 교화하는 것이 참된 기능이기 때문이지요. 한편 스테디셀러는 출판사에게는 보약인 셈입니다. 또한 우리 문화의 역량을 보여주는 반영물이기도 합니다. 스테디셀러는 출판계와 사회가 함께 만드는 출판문화의 핵심이자 정수입니다." 한길사 김언호 사장의 스테디셀러론이다.

——최성일 기자

문화유통북스 출범

경기도 파주군 교하면에 17개 출판사 공동창고 준공



지난 5월9일 가졌던 (주)문화유통북스 준공식.

둥지 현암사 푸른숲 열린책들 등 총 17개 출판사들이 공동으로 출자해 추진해온 (주)문화유통북스(대표이사 이석표)가 경기도 파주군 교하면에 첨단 창고 설비를 갖춘 협동화사업장을 완공하고 지난 5월 9일 현지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주)문화유통북스는 총 1천3백여평의 면적에 최대 250만권의 책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에 자체 개발한 도서관리 전산 시스템을 갖추고 합리적인 도서관리 및 출고작업을 하게 된다. 또한 반품도서의 수거, 분류, 재생, 파기, 표지갈이 등 경제적인 반품관리와 전문업체를 통한 배송대행도 하게 된다.

한국·서울출판유통 합병

한국출판유통 주식회사(대표 윤석금)와 (주)서울출판유통(대표 최선호)는 지난 5월8일 한국출판유통 사무실에서 합병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출판유통과 서울출판유통이 22일 각각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합병승인을 받게 되면, 오는 8월부터 한국출판유통(주)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출판유통(주)은 서울출판유통의 자본금 62억원을 흡수, 총 1백35억원의 자본규모에 354명의 출판·서점인 주주가 참여하는 대형유통회사로 출범하게 된다.

'96 서울국제도서전 개막

대한출판문화협회와 조선일보, 문화방송, 한국종합전시장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문화체육부와 한국서점조합연합회가 후원하는 '96 서울국제도서전이 총 20여개국 1천5백여개사(국외 5백여사)에서 30여만권의 책이 출품된 가운데 지난 5월 18일 한국종합전시장(KOEX)에서 개막됐다.

전부 505개부스(국제관 86부스)가 설치되어 오는 24일까지 치러지는 이번 도서전은 전자출판물과 외국출판물이 다수 전시되며 외국어로 번역된 우리 책을 전시하는 '세계로 가는 한국 출판전' '세계 어린이 그림책전' '한국 창작 만화전'등 풍성한 특별 기획전 및 부대행사가 함께 열린다.

간행물윤리위원회 세미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권혁승)는 지난 5월14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유해간행물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주제로 정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연세대 서정우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손봉호(서울대 교수), 이원복(덕성여대 교수) 등이 참석, 유해간행물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한 진지한 강연과 토론을 벌였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정기 세미나.

《임꺽정》 완간 기념 작품발표회

이두호씨의 대하역사만화《임꺽정》(전21권) 완간 기념 작품발표회가 지난 5월 16일 오후 6시 (주)프레스빌 주최로 대교 보라매센터 한마음 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저자 이두호씨를 비롯 권영섭, 박재동, 곽대원씨등 중견만화가들 이 참석, 자리를 빛냈다.

제2회 한국출판평론상 공모

재단법인 한국출판연구소(회장 김경희)는 제2회 한국출판평론상을 공모한다. 국내 유일의 출판평론가 등용문인 이번 공모는 출판정책부문, 출판계 시평 부문, 신간 평론 부문 등 3부문으로 나누어 시행되며 응모자격은 제한이 없고 마감은 9월30일 소인까지 유효.(739-9040)

어린이도서상 및 과학기술도서상 시상식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주관하는 제17회 어린이도서상 및 제14회 한국과학기술도서상 시상식이 지난 5월 14일 오후 2시 출협 강당에서 열렸다.

어린이 도서상 수상자는 ▲저작부문 신지식 ▲일러스트레이션 부문 홍성찬 ▲ 기획·편집 부문 김낙천(고려원 미디어 대표)씨이며 과학기술도서상 수상자는 ▲저술부문 남문현 ▲번역부문 장회익 ▲출판부문 백행균 ▲ 특별상 김홍석씨 등이다.